청년문화·대학 전법 지원…'관심'을 '신행'으로

제37대 집행부 성과 | 청년 전법 · 힙불교 진흥

'문화' 매개로 청년세대와 소통
불교박람회 인기…25만 명 기록
'청년밥심' 등 돌봄 사업 지속
전법 환경 · 예산 확보 등 과제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우 스님이 이끈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불교문화 콘텐츠와 동아리 지원, 생활 돌봄을 중심으로 청년 전법 사업을 추진했다. 뉴진 스님 활동 지원과 선명상 포교그룹 비텐스, 불교박람회 등을 통해 청년과 만나는 기회 역시 넓혔다.

진우 스님은 2022년 9월 28일 임기 첫날 청년 불자들을 만난 데 이어 문화행사와 차담 등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했다. 2024년 본지 인터뷰에서는 "청년세대와 소통할 언어를 고심했고, 그 언어가 지금은 '문화'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화포교에는 음악과 공연을 활용했다.

2024년 8월에는 비구·비구니 스님 10명으로 구성된 '비텐스'를 선보였다. 노래와 악기 연주 등 각자의 재능을 활용해 선명상을 알리는 프로젝트다.

뉴미디어 활용도 확대했다. 조계종은 삼원통합을 진행하며 미디어홍보실을 신설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법문과 사찰탐방, 불자들의 삶을 소개했다. AI를 활용한 찬불가와 뉴스쇼츠 등도 제작했다.

조계종이 주최한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불교문화 체험의 장으로 운영됐다. 2025년에는 인근 봉은사의 국제선명상대회와 연계했고, 올해는 공(空) 사상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체험 콘텐츠를 선보였다. 올해 관람객은 25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20·30대 비중은 72%로 2025년에도 20대와 30대 비중이 각각 37.2%, 36.2%로 합계 73.4%였다.

대학생 전법에서는 사찰과의 연계 및 체험 지원이 추진됐다. 진우 스님은 2025년 2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부를 만나 지역 사찰 연계와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각 대학마다 학생들이 대불련에 가입하게 하려면 전법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한다"며 "지역사찰과의 연계, 종단적 차원의 지원으로 대불련 활동에 부족함이 없게 돕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불교박람회 인기를 견인하며 미래세대의 불교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높였다. 사진은 지난해 4월 3일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 직후 현대불교신문 부스를 찾은 진우 스님.

청년들의 사찰 체험과 교류도 지원했다. 진우 스님은 2024년 5월 봉축기자간담회에서 청년 단기출가 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밝히며 청년세대가 갖는 불교의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복안을 내놓기도 했다.

청년들의 생활을 살피는 현장 활동도 이어졌다. 진우 스님은 올해 5월 19일 서울 연화사의 '청년밥심'에 참여해 배식하고 대학생들과 진로 고민을 나눴으며 운영 지원금을 전달했다.

적극적 소통을 기반한 포교 종책은 성과로도 이어졌다. 서울 봉은사는 박람회를 계기로 찾아온 청년들을 기초학당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안내했다. 지난해 하반기 교육과정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사찰음식, 108배, 봉사, 템플스테이 등을 보강했다. 기초학당의 30대 교육생은 75기 22명에서 76기 48명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청년들의 관심을 지속적인 신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현재의 흐름이 일회성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전통의 가치를 청년의 눈높이로 풀어내는 '콘텐츠의 유연함' △체험을 수행으로 이어주는 '인적 네트워크' △현장을 지탱하는 '실질적 인프라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선민지 대불련 중앙회장)"는 것이다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관심을 신행으로' 기획 인터뷰에서 "공연과 전시, 음악, 문화콘텐츠는 불교와 친해지는 좋은 출발점"이라며 "문화적 경험이 사찰 방문으로 이어지고, 스님과 도반을 만나 수행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신행이 시작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호감을 신행으로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며 국내외 재난 구호 견인

제37대 집행부 성과 | 대사회 활동

사회적 약자 초청 · 정부에 요구 전달
차별금지법 지지 · 산재 희생자 추모
국내 재난 복구 · 해외 긴급구호 전개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참사 희생자 추모, 국내외 재난 구호를 중심으로 대사회 사업을 전개했다.

사회적 약자와의 소통은 법회와 간담회, 현장 방문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2025년 6월 22일 봉은사에서 '평등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돌봄·청소 노동자, 참사 유가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당사자와 활동가 40명이 초청됐다. 법사로 나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들의 요구를 듣고 사회 각계 지도층에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봉은사와 함께 이주노동자 치료·긴급구제기금 500만원도 전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입장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불교계의 제정 촉구 활동을 "수행의 실천이자 부처님 자비의 시대적 응답"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7월 17일에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손솔 국회의원을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조계종은 2025년 11월 18일 조계사에서 국내·이주노동자 140여 명의 위패를 모신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위령재에 앞서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진우 스님은 유가족의 면담 요청과 이주정책 전환 요구 등이 담긴 서한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을 당부했다.

2026년 새해 첫날에는 봉은사에서 참사 유가족과 노동자, 인권·빈곤 문제 활동가 등과 108배를 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4월 24일에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의 주거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해결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왔다. 사진은 올해 4월 24일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한 진우 스님이 윤용주 동자동 사랑방 전 대표와 악수하는 모습.

참사 피해자 추모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22년 11월 4일 이태원 참사 추모위령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재난안전 시스템 재설계를 촉구했으며 이듬해 10월에는 유가족을 만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자연재난 현장에서는 복구와 이재민 생활을 지원했다. 2023년 7월 25일 수해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을 찾은 진우 스님은 경북도와 예천군에 성금 각 1억원, 예천군에 3000만원 상당 식료품·생필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과 교구본사 등이 기금 마련에 참여했다.

2025년 경북 산불 당시에는 이재민 생활가전 제품을 지원했다. 진우 스님은 5월 26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냉장고 700대와 TV 1300대 등 12억원 상당 물품을 전달했다. 같은 해 7월 산청 집중호우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을 약속했으며, 종단 긴급구호단은 주민들에게 2000만원 상당 구호물품 100세트를 지원했다.

해외 구호도 발 빠르게 이뤄졌다. 조계종은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당시 구호금 2억원을 전달했고, 아름다운동행은 이재민 임시주거단지에 컨테이너 주택 100동을 지원했다. 2024년에는 차양막과 식료품 지원을 이어갔다.

2023년 모로코 지진 때는 국제합동구호단을 파견해 겨울용 텐트 150동, 책가방 500개, 위생키트 500세트 등을 전했으며 2026년 9월 네팔 대홍수에도 10만달러 규모의 긴급구호가 진행돼 둔체 850가구에 식료품 키트, 베트라와티에 복구물품 300세트가 전달됐다.

아름다운동행이 추진하는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운영도 10년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 올해 8월 22일 제8회 졸업식을 통해 64명이 학업을 마치면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모두 594명의 농업 전문인력을 배출한 현지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신중일 기자

[2026팔관회보조금지원사업임]

신라 때부터 꽃피운 천년의 불교문화축제

팔관회

2026. 10. 17 토 — 19 월

금정총림 범어사

준비일 17일(토)
선재동자 수계법회
마정수기 법회

소회일 18일(일)
호국기원 법회
백희가무

대회일 19일(월)
호국영령위령재
팔관재계수계법회

부산불교연합회
유튜브 채널
BBA 바로가기

주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6 팔관회봉행위원회 후원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문의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_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400호(양정동, 불교회관) 051)867-0501~3